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대림 제1주일** 2018. 12. 2.(다해) 제2135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풍성한 강복을 빕니다.

지난 2018년 저는 우리 교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느님께서 내리신 채찍질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내리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구가 참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며 시련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교구는 지난 교구 시노드의 결의사항들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교구쇄신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활동 중인 두 소위원회의 활동에 큰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구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 건실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은 우리 교구의 성모당이 봉헌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구는 초대교구장 안세화 드망즈 주교님께서 가지셨던 성모 마리아께 대한 원의와 정신을 되새겨 보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와 신앙인으로서의 참모습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망즈 주교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당과 가정과 단체 및 개인별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약속하고, 2020년까지 3년간 이러한 원의와 희망으로 교구의 쇄신과 발전, 성소자 발굴과 사제양성,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본당과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2018년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신 루르드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의 해’로 삼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기를 힘써왔습니다.

이제 2019년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어라.” 하신 루르드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와 화해의 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건 없이 하느님께 용서를 받은 신앙인은 다른 이가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주시기를 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하느님과 교회를 떠난 교우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냉담 교우 회두운동’을 펼쳐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냉담 교우들이 아버지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각 본당은 특별히 2019년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냉담 교우 초청 행사와 그들과 함께 거행하는 참회와 화해의 예식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본당과 단체들은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나 도농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정하신 10월 ‘특별 전교의 달’의 정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의 [선교에 관한] 교황교서 「가장 위대한 일」 (*Maximum Illud*) 반포 100주년을 맞아 2019년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지정하시고,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참된 ‘선교 회개’의 마음을 일깨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례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초대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 이르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 성교회는 선교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사명으로, 미룰 수 없는 의무로, 교회를 존속하게 하는 존재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구민 모두가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기도하며 투신해야 하겠습니다. 교구 선교센터와 본당 선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본당 혹은 교구 단위의 선교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교구선교위원회와 해외 파견 평신도 선교사 결성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교대상자를 위한 지향으로 교구 성모당과 한티 순교성지를 비롯한 성지들을 순례할 것과, 선교를 위한 묵주 기도를 열심히 봉헌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8년 12월 2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하.조 환길 타대오

이대로 내 삶은 괜찮은가?

시간을 돌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돌려 그리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되도록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대림이 오고 매년 새해가 오기 때문에 ‘그냥 뭐, 늘 오던 시간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이 시간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면 후회 없는 삶이겠지요. 그런데 ‘나는 이대로 죽는다면 후회할 거 같아.’ ‘나는 이대로 죽는 게 억울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살펴보고 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죽음을 이해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으로 달려가보라.”

죽음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 이대로 내 삶은 괜찮은 것인지, 지금 죽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내 삶의 의미를 점검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바라보면 삶은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죽음은 대리가 불가능하며 언제나 ‘나’의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며 내 삶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는 존재, 떠날 때 그리운 존재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지 않는가? 왜 즐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즐겁지 않은 삶을 사는가? 왜 그렇게 사는가?”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대림시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필로**

주요한 사도요한 신부 | 오천고등학교 교목실장



최저 임금제, 어떻게 볼 것인가 II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지난 회에서 최저 임금제 논란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효율성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유 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이 부의 올바른 재분배를 막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그에 맞섭니다.

전자에 따르면 국가는 가능한 경제 환경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나라 살림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공공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시장의 크기를 키워가야 하며, 그렇게 ‘돈이 돌면’ 이른바 ‘낙수효과’로 인해서 모두가 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려 60년 이상 고도성장기로 이끌었던 방법인 만큼, 여태 하던 대로 하자는 뜻이지요.

후자는 과거의 경제 정책이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겼고, 성장과 발전의 열매가 거대 자본과 투기 세력과 같은 일부에게 집중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장의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SOC나 택지개발 같은데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양을 줄이고, 대신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이 이득을 보게 되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분배에 기반을 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판국에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일이고, 세계적인 경쟁이 격화되던 지난 몇 년간 재정을 건설에 투입하느라 낭비했으니 이제라도 씹씹이를 바꿔서 사회양극화를 줄여가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자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이런 입장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 또 나라 돈은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그 자체는 절대악도 절대선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과 검증과정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최저 임금 때문이다!” 식의 일방적인 선동이나 “내로남불”의 진영논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면,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담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구체적인 정책의 유효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검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교리는 최저 임금 인상에 얽혀 있는 철학과 윤리의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는 최저 임금 인상 논쟁의 사회 윤리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문**

자신을 위한 기도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한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전케 하여주소서.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맑은 것을 알아보게 해주소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사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지루함을 모르고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모르는 영을 주소서.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친절과
풍자를 포용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성 토마스 모어 (Thomas More 1477~1535) : 인본주의자, 순교자, 법률가의 수호자, 정치가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편견

“무엇이든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설명을 청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인은 일주일에 칠 일을 기쁜 마음으로 단식을 했다.
그의 이웃은 같은 단식으로 굶어 죽었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예레 33,14-16 제2독서 1테살 3,12-4,2 복 음 루카 21,25-28,34-3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복 음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11.25(일) _ 장성성당 25주년 감사미사 및 건진성사

11.25(일) _ 경산성당 건진성사

11.29(목) _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법인 직원
전체모임 및 교육

한국 평협 창립 50주년 기념 연극 공연 빛으로 나아가다



평신도 희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제작한 “빛으로 나아가다”를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교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김익진 프란치스코의 삶을 조명하는 이번 연극 공연을 통해, 복음의 빛을 따라 사는 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묵상해 보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 12.6(목) ~ 7(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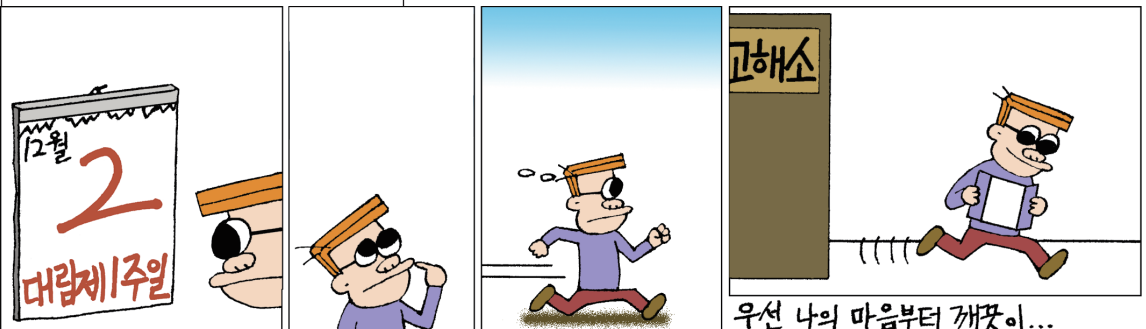
16시 / 20시 (매일 2회 공연)

장소 :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 입장권은 각 본당으로 발송되었으며 입장권 소지자에 한 해 당일 현장에서 지정 좌석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5일(수) 19:00 용강성당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7일(금) 19:00 평화성당 소강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8일(토) 10:00 월성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대리구

3대리구 카리타스 청소년인권캠프

일시: 2019.1.8(화)~10(목) 2박 3일

장소: 청통수련원

참가비: 2만원

대상: 3대리구 본당 중3~고2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회, 641-3456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2.8(토) 15:3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

문의: (010)3324-0731

<http://vocation.jesuits.kr>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피정

일시: 12.21(금) 10:00~16:00

장소: 프란치스카눔 / 주제: 완덕을 향해

강사: 황인수(이냐시오) 신부(성바오로)

회비: 1만 5천원(중식·간식 제공)

문의: (010)9333-6260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매일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2.30~1.2 / 1.11~13 / 1.16~18

1.21~24 / 1.28~30 / 2.10~12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2.9~10 / 3.16~17

3박 4일: 12.6~9 / 1.5~8

8박 9일: 12.26~1.3 / 2.12~20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 축복의 밤

일시: 12.8(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미사, 공연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2019년 맨발가르멜재속회원 모집

마감: 각 팀의 1월 모임 전까지

첫째주 주일팀: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팀: (010)6655-0051

넷째주 주일팀: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팀: (010)4733-171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접수: 11.12(월)~2019.2.13(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평신도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일시: 12.18(화) 9:30,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봉헌의 삶을 원하는 58세 이하

준비물: 사진 2장,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이글라라 수녀, (010)4622-4819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일시: 2019.1.4(금)~6(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 12.18(화)부터 선착순

대상: 중 1~2학년 / 비용: 15만원

접수: 양업고 홈페이지 / (043)260-5078

제53차 마 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대·일반: 2019.1.5~2.17(6주, 장기 선택)

평화롭고 안전한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아일랜드인 가정 홈스테이 1인 1실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25차 해외선교사 교육

일시: 2019.1.7(월)~2.1(금)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주관: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문의: (02)953-0613 / (010)5397-842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35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평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대우은행
본점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윤영희 성형외과

-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 서울의대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진료

원장 윤영희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 신축이전
(3호선 어린이회관 역)
T. 053)766-2454 / 245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철,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을요양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용역 2번출구 (동행방향 20m)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예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일(아네스)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미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종이주자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브로치 선물 증정 ♥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강찬형(파스칼) 신부
1995년 12월 5일
- 안군목(마가리오) 신부
1948년 12월 8일
- 장병보(베드로) 신부
1983년 12월 8일

행사 | 모임

2박 3일 성령묵상회

일시: 12.7(금) 13:00~9(일) 17:00
신청: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묵주100단 기도 피장: 매주 목 11: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2018년 사회교리 주간 행사

일시: 12.12(수)~14(금) 19: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합동강의실
주제: 4.30이 뭐우까?
내용: 특강, 영화관람, 토크콘서트, 세미나
문의: 대구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교육 | 모집

159차 한국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일시: 1.5(토), 6(일), 12(토), 13(일)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참가비: 15만원 / 마감: 12.21(금)
문의: 250-3067 / (010)6418-6102

제5기 해외봉사단 모집

일시: 2019.1.23(수)~31(목) 8박 9일

장소: 필리핀(사랑의 선교회)
회비: 7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전례생활연구회 월례공부 모임

일시: 12.3(월) 19:30~20:3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성탄전례 준비
대상: 전례봉사자, 관심있는 신자
문의: (010)3811-2618 / (010)3524-3217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일시: 12.10, 17, 24(월) 11:00~14:0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아고보)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있는 분
문의: 선교센터(가두선교단), 781-6100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_6차)

일시: 12.13(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무릎 통증에 대한 이해와 치료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2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바오로딸(동성로) 개축 후원 모집

만남·위로·기도의 공간으로
교구민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 504-10-316039-6
문의: 바오로딸, 425-5373

채용 | 안내

부산 분도명상의집 피정의집 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대상: 주거 가능
문의: (051)582-4573 / (010)6650-457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민예령(올리아)
문의: 253-955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상담)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7~8

2019년 교구 신앙 북캘린더 판매

가격: 8,000원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7~8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결혼」리스토리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산나 (교황 박시 대구경북대신학연구소 소장)
010.6571.3385 | 053.586.3220
성서 계대 동문 맞은편 국내-대구 달서 0003호
www.LeeStory.kr 국제-대구 달서 0002호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정신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 053)670-6000

일본 성지순례
출발일: 1월 17일 / 3월 2일 / 4월 1일 (3박 4일)
터카그리스 성지순례
출발일: 4월 30일 (12박 13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주)성지여행 홈 미 회(안젤라)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비노보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타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련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정신치료를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타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3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서울: 02-3141-3888
부산: 051-817-3887